

너무 빠른 헝가리 본선 티켓 따고도 욕먹은 한국 축구



5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분요드코르 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우즈베크와 0-0 무승부를 거둔 한국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을 헝가레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순위

9월 6일 현재 ✓ 본선 진출 확정

구분	팀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A조	이란 ✓	6	4	0	8	22
	대한민국 ✓	4	3	3	1	15
	시리아*	3	4	3	1	13
	우즈베키스탄	4	1	5	-1	13
	중국	3	3	4	-2	12
B조	일본 ✓	6	2	2	10	20
	사우디아라비아 ✓	6	1	3	7	19
	호주*	5	4	1	5	19
	아랍에미리트	4	1	5	-3	13
	이라크	3	2	5	-1	11
태국	0	2	8	-18	2	

자료: FIFA *플레이오프 진출 ✓ 연합뉴스



러 월드컵 2년 최종예선 A조 10차전 우즈베크와 0-0... 조2위로 본선 직행 초조했던 선수들, 이란-시리아 2-2 극적 무승부 소식에 '기쁨의 눈물'

한국 축구가 '타슈켄트의 기적'을 일궈내며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분요드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10차전 원정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조의 이란과 시리아가 2-2로 비기면서 한국이 조 2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은 4승3무3패(승점 15)로 시리아(3승4무3패·승점 13)를 제치고 조 2위에 주는 본선 직행 티켓을 차지하며,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9회 연속이자 통산 10번째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우즈베크와 역대 상대전적에서도 10승4무1패의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다. 그러

나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원정 5경기에서는 2무3패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해 실망감을 안겼다.

신태용 감독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기겠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공세적인 조합을 들고 나왔다. 원톱 황희찬(잘츠부르크)을 꼭짓점으로 좌우 날개에 손흥민(토트넘)과 이근호(강원)를 배치했다.

포백 수비진에는 왼쪽부터 김민우(수원)-김영권(광저우)-김민재(전북)-고요한(서울)을 배치했다. 왼쪽 풀백 김민우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장현수(FC도쿄)가 수비진에 내려오면 수비백으로 전환하는 '변형 스리백'을 구사하기도 했다.

한국은 경기 시작 1분 만에 상대 위험지역까지 파고든 황희찬이 김민우의 스로인 패스를 받아 원발 터닝슛을 날렸다. 공이 크로스바를 맞으면서 우즈베크 수비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슬리해야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는 우즈베크도 종전의 수비축구에서 벗어나 좌우 측면을 이용해 빠른 돌파로 기회를 노렸다. 전반 20분에 아지즈베하이도르프가 아크 정면에서 강하게 찬 오른쪽 중거리슛이 왼쪽 골대를 강타했다. 같은 시각 시리아가 전반 14분 선제골을 뽐내면서 신태용호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한국은 전반 43분 볼 결합 과정에서 부상당한 장현수를 대신해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을 교체 투입, 정우영(충청)과 중앙 미드필더로 호흡을 맞추게 했다.

전반 추가 시간 황희찬의 침투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강한 오른쪽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았다. 한국은 이후 거센 공세를 펼치지만 상대 수비벽을 뚫지 못했고, 득점 없이 전반을 마쳤다. 이란이 1-1로 균형을 맞춰 태극전사들의 부담도 조금 줄었다.

하지만 한국은 전반 볼 점유율에서 39

한국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및 성적

1954 스위스 월드컵	감독 김용식
결과 2패 (조별예선 탈락)	
1986 멕시코 월드컵	감독 김창남
1무2패 (조별예선 탈락)	
1990 이탈리아 월드컵	감독 이희태
3패 (조별예선 탈락)	
1994 미국 월드컵	감독 김홍도
2무1패 (조별예선 탈락)	
1998 프랑스 월드컵	감독 차범근
1무2패 (조별예선 탈락)	
2002 한·일 월드컵	감독 김종수
4승1무2패 (4강 진출, 4위)	
2006 독일 월드컵	감독 박희태
1승1무1패 (조별예선 탈락)	
2010 남아공 월드컵	감독 김창남
1승1무2패 (16강 진출 실패)	
2014 브라질 월드컵	감독 홍명보
1무2패 (조별예선 탈락)	
2018 러시아 월드컵	감독 신태용
- 한국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역대 총 10회)	
- 본선 : 2018년 6월 14일~7월 15일 (한국시간)	

대 61로 밀렸고, 슈팅 5개 중 유효 슈팅이 한 개도 없었을 정도로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

후반 18분 권창훈 대신 원발 크로스 능력이 좋은 염기훈(수원)을 투입하면서 공격의 흐름이 한국 쪽으로 이동했다. 손흥민이 오른쪽 날개로 이동하고, 이근호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았다.

한국은 20분 염기훈의 크로스를 수비수가 걷어내자 김민우가 강한 원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1분 후 황희찬의 오른쪽 슈팅도 골대를 벗어났지만 한국이 공격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

신태용 감독은 후반 33분 이근호를 빼고 이동국(전북)을 투입했다. 이동국은 황희찬과 투톱을 이뤄 공세를 이어갔다. 이동국은 후반 40분 김민우의 크로스를 받아 헤딩슛을 꽂았지만, 골키퍼에 가로막혔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 이동국의 강한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손흥민의 재차 슈팅도 골대를 벗어나면서 경기는 0-0으로 끝났다.

그리고 초조하게 테헤란의 경기 결과를 지켜본 한국은 이란-시리아 경기가 2-2 무승부로 끝나자 비로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최종 예선 도중 감독 교체의 극약 처방을 내린 한국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순간이었다. /연합뉴스

독일·벨기에·브라질 본선 확정...아르헨 '위험'

본선 진출 8개국 확정...시리아-호주 PO 뒤 북중미 PO 승자와 또 격돌

한국이 9년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에 성공한 가운데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 무대에 가기 위한 32장의 티켓 가운데 지금까지 8장이 주인을 찾았다.

9월 A매치 기간이 끝난 6일 현재 러시아월드컵 본선진출을 확정 지은 나라는 아시아 4개국, 유럽 2개국, 북중미와 남미 각 1개국이다.

4.5장의 티켓이 걸린 아시아지역의 경우 이란이 지난 3월 일찌감치 러시아행을 확정 지은 데 이어 9차전 이후 일본이, 마지막 10차전 이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합류했다. 시리아와 호주는 홈 앤드 어웨이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플레이오프의 승자는 다시 북중미 플레이오프 승자와 본선진출 한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된다.

유럽은 14장의 티켓 가운데 개최국 러시아와 벨기에가 일단 한 자리씩을

확보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이 9개 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른 후 조 1위가 본선으로 직행하고 2위 가운데 상위 8개국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4개국이 합류하게 된다.

2경기씩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H조 벨기에가 2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승점 차를 8점으로 벌려 조 선두를 보장받았고, 나머지 조에선 모두 1~2위의 승점 차가 6점 이내다. 프랑스와 스웨덴이 승점 1점 차이인 A조, 8전 전승의 스위스와 7승 1패의 포르투갈이 맞서는 B조,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3점 차 1·2위인 G조가 특히 치열하다.

북중미에서는 멕시코가 한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남은 2.5장을 놓고 코스타리카와 미국, 온두라스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승점이 같은 3·4위 미국과 온

두라스는 이날 물러날 수 없는 일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고, 조 2위 코스타리카도 멕시코전 1-1 무승부로 러시아행 확정 계획이 좌절됐다.

남미도 치열하다. 4.5장의 티켓 가운데 1장은 브라질이 가져갔고 우루과이(27점), 콜롬비아(26점), 페루, 아르헨티나(이상 24점), 칠레(23점), 파라과이(21점), 에콰도르(20점)까지 모두 7개국이 승점 7점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5장이 걸린 아프리카는 5개 조 1위가 본선에 직행하게 되는데 현재 어느 조에서도 1위가 2위와 승점 차이를 4점이 상으로 벌리지 못했다. 0.5장이 걸린 오세아니아의 경우 뉴질랜드가 솔로몬제도의 플레이오프에서 1승 1무를 거둔 후 남미 5위와의 플레이오프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대표팀 오늘 오전 귀국...유럽과 소속팀 복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축구대표팀이 7일 오전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신태용 감독과 코치진, 이동국(전북)을 비롯한 국내 K리그 11명, 김영권(광저우) 등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5명, 김승규(빗셀 고베) 등 일본 J리그 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손흥민(토트넘)을 포함한 유럽과 5명과 카타르 리그에서 뛰는 남태희(알두하일SC)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곧바로 소속팀으로 돌아간다. 귀국 후 별도의 해단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소속팀 복귀 후 주말 예정된 주말 경기 출격을 준비한다. 손흥민은 9일 밤 에버턴과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원정경기 가 예정돼 있다.

지난달 28일 버리와 홈경기에서 개막 후 3경기 만에 처음 선발로 나섰다 손흥민은 골질 수술을 받았던 오른쪽이 완전히 회복됨에 따라 2경기 연속 선발 출장할 가능

성이 크다.

지난 6월 14일 카타르와의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 이후 무릎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던 기성용(스완지시티)은 대표팀에 합류하고도 2경기 연속 23명의 엔트리에 제외돼 일단 소속팀으로 돌아가 실전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38세의 나이로 태극마크를 달아 강재를 과시했던 이동국을 비롯한 K리그들은 이번 주말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이동국과 김신욱, 이재성, 김진수, 최철순, 김민재 등 6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던 전북은 10일 강원을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이에 따라 대표팀에서 힘을 모았던 '전북 6인방'과 강원의 핵심 공격수 이근호가 팀 승리를 걸고 맞붙는다.

태극전사들은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데이 주간(10월 2~10일) 사흘 전인 오는 29일 다시 모인다.

/연합뉴스

한국 100억원 확보 FIFA 배당금 등

한국 축구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으면서 자금줄인 스폰서를 잡아둔 건 물론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는 배당금으로 최소 1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우승 상금 등 상금액과 배당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준으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FIFA로부터 받는다.

FIFA는 브라질 월드컵 당시 32개 본선진출국에 기본 출전 배당금으로 90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출전 준비금으로 17억원을 추가해 줬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상금 및 본선 진출국 배당금 규모가 브라질 대회보다 다소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16강, 8강, 4강, 결승 진출과 우승 등에 따른 별도의 상금을 준다. 브라질 월드컵에선 우승팀 독일 3400만 달러(약 356억3000만원), 준우승팀 아르헨티나 2500만 달러(254억5000만원)가 등 총 상금 규모가 4000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